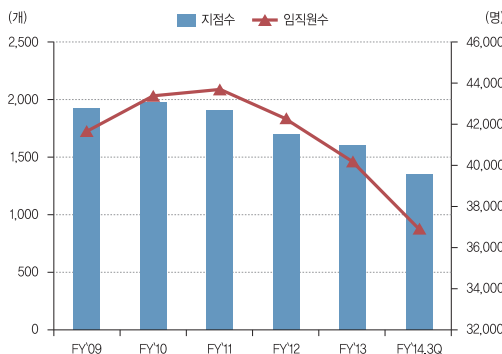


최근 국내 증권산업의 현황

- 최근 증권시장 침체로 인한 증권회사의 지점 통폐합과 인력 감축으로 지점수 및 임직원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판관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일평균 주식거래규모 감소와 수수료율이 하락함에 따라 위탁매매를 통한 수익시현이 어려운 가운데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외국계지점을 포함한 국내 증권회사 수는 2000년대 이후 60개사 내외로 증권회사의 수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및 증권회사간 인수합병 등도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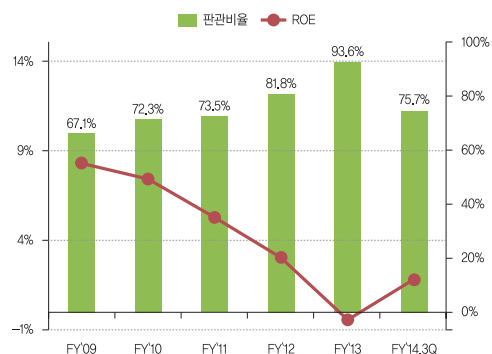
- 최근 증권시장 침체로 인한 증권회사의 지점 통폐합과 인력 감축으로 지점수 및 임직원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판관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4년 3분기¹⁾ 전체 증권회사의 지점수는 1,366개로 전년동기대비 16.9%(1,644개) 감소하였고, 동기간 임직원수는 36,97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3%(4,252명) 감소
 - 지점수 추이 : 1,933개(FY09) → 1,919개(FY11) → 1,611개(FY13) → 1,366개(FY14.3Q)
 - 임직원수 추이 : 41,665명(FY09) → 43,820명(FY11) → 40,245명(FY13) → 36,970명(FY14.3Q)
 - 2014년 3분기 증권회사 판관비율은 75.7%로 2013년도 말 93.6%와 비교하여 17.9%p 감소하였고 ROE는 1.8%로 전년동기대비 1.9%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비용의 낮은 수익성을 보여줌
 - 지난해 인원감축에 따른 명예퇴직금 증가로 인해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증가

증권회사 임직원 및 지점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회사 판관비율 및 ROE 추이



주 : 판관비율 = 판매비와관리비/순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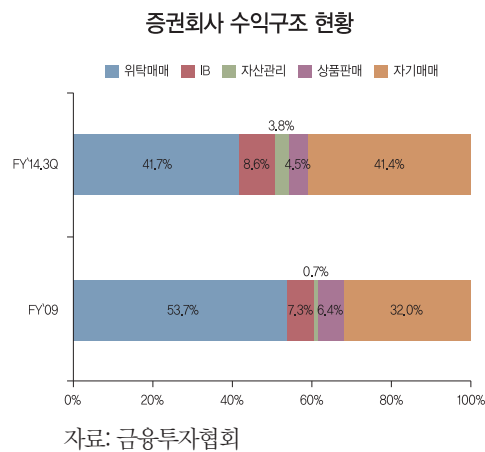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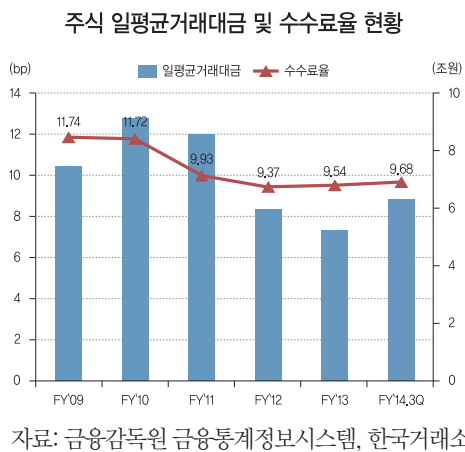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 FY2012까지는 3월말 결산(4월~3월)이며, FY2013부터 일부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12월말 결산(1월~12월)으로 변경



□ 일평균 주식거래규모 감소와 수수료율이 하락함에 따라 위탁매매를 통한 수익시현이 어려운 가운데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3분기 일평균 주식거래규모는 약 6.3조원으로 FY2010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낮은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율로 인해 증권회사의 수익개선은 어려운 상황
 - 주식위탁매매 수수료율 : 11.74bp(FY09) → 9.93bp(FY11) → 9.54bp(FY13) → 9.68bp(FY14.3Q)
- 2014년 3분기 증권회사의 수익 비중은 위탁매매(41.7%), 자기매매(41.4%), IB(8.6%) 순이며, 자산관리(3.8%) 및 상품판매(4.5%)의 수익 비중은 여전히 낮음
 - FY2009와 비교하면 펀드투자자의 감소로 상품판매의 수익비중은 1.9%p 감소하였고, 자산관리의 수익비중은 3.1%p 증가
 - 위탁매매의 수익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B, 자산관리, 상품판매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가 미흡



□ 한편, 외국계지점을 포함한 국내 증권회사 수는 2000년대 이후 60개사 내외로 증권회사의 수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및 증권회사간 인수합병 등도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2개의 증권회사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고려했을 때 최근 몇 년간 증권회사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2007년 5,005개였던 증권회사의 수가 2011년 4,435개로 크게 감소²⁾

2) 국내 증권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금주의 논단 22권 45호

증권회사 수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2013년	2014.9월
64개	61개	60개	59개	57개	54개	54개	54개	61개	62개	61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9월말 현재 21개 증권회사가 총 14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2009년 이후 진출 증권회사 및 진출 국가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현지법인이 증가하고 사무소가 감소한 특징을 보임
 - 동기간 진출형태 중 사무소의 비중은 23.5%로 2009년 45.0%와 비교하여 21.5%p 감소하였고 이는 증권회사의 비용절감에 따른 것으로 보임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진출 증권회사(개사)	20	20	19	21	22	21
진출 국가(개)	15	15	15	15	15	14
진출형태(개)	80	93	96	92	92	85
현지법인	43	54	60	63	67	63
지점	1	2	3	3	2	2
사무소	36	37	33	26	23	2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한편, 지난해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사례는 대만 유안타그룹의 동양증권 인수와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NH투자증권으로 출범한 2건에 불과³⁾
 - 이 외에도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의 중소형 증권회사가 있으나 실제 구조조정 여부는 미지수

선임연구원 박신애

3) LIG손해보험이 KB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LIG투자증권이 KB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것은 제외